

호주에서, 너를 만나다

진동철

나의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한
혜정에게
이 소설을 바칩니다.

목 차

1. 제니를 닮은 그녀	4
2. 그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마음 고생은 안할 것 같은데?.6	
3. 처남이라 불리는 남자	9
4. 그레이트오션로드에서 그녀를 생각하다	12
5. 모든 것이 낯선 기숙사 생활	15
6. 모든 것이 낯선 하숙 생활	17
7. 주말마다 city로.....	21
8.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24
9. 데이트인듯 데이트아닌듯.....	27
10. 벌써 수료식, 그녀가 사진을 찍어주다	31
11. 그녀를 찾아 멜번 시내를 헤매다.....	33
12. J가 떠난 랭귀지센터에서... ..	35
13. 인연은 다시 편지로 이어지고.....	37
14. 아이들과 함께 호주로... ..	39

1. 제니를 닮은 그녀

“제니 닮았네...”

그녀를 본 J의 첫 느낌은 그랬다. 계란형의 얼굴에 볼살도 살짝 있고, 긴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는 모습은 영락없는 제니였다. TV를 자주 보지 않는 J였지만 ‘남자셋 여자셋’에 나온 제니는 싱그럽고 젊은 매력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다.

제니를 닮은 그녀를 만난 건 랭귀지센터 라운지였다. J는 같은 반 한국인 찰리와 함께 있었다. 수업 중간 Break 타임이었다. 갑자기 찰리가 뒤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인 두 명을 소개해 주었다. 그 중 한 명이 그녀였다. 그녀는 얼마전 멜번에 도착해서 랭귀지 센터에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부산 아가씨였다. ‘사투리는 별로 안 쓰는데...?’라는 생각이 들만큼 사투리가 느껴지지 않았다. 대학 졸업하고 어학연수를 왔다고 했다. 잠깐의 Break 타임이 끝나고 어영부영 인사하고 헤어졌다.

그녀를 만난 이후 J는 주변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라운지에

있든 컴퓨터실에 있던 두리번두리번거렸다. 혹시나 그녀가 있지는 않나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녀를 볼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J는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다. 랭귀지센터가 있는 La Trobe 대학에서 전철을 타고 몇 정거장을 가는 거리였다. 수업이 끝나면 PLC(Private Learning Center)에서 혼자 복습하다가 전철을 타고 집에 가곤 했다.

반면 그녀는 대학 안에 있는 기숙사 Chisholm College에 묵고 있었다. 같은 랭귀지센터를 다니는 한국인 외에 같은 기숙사에 묵고 있는 한국인, 외국인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J와 그녀의 동선이 겹치는 일은 별로 없었다. 클래스가 다른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J는 Advanced반이었고 그녀는 Intermediate반이었다. 한 건물 안에서도 서로 떨어져 있는 반이었다.

그러나 J는 모르고 있었다. 혼자 홈스테이 집에 가기 위해 랭귀지센터를 나서는 모습을 멀리서 그녀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2. 그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마음 고생은 안 할 것 같은데?

머리는 더벅버리.

허리는 구부정.

친구도 없이 혼자 배낭 하나 메고 왔다갔다...

J는 그렇게 생겼다. 아니, 그녀는 J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키는 큰데 허리는 구부정하게 해서 다니고 머리는 호주 와서 한번도 안 깎았는지 더벅머리가 되어있고. 어울리는 사람도 없는지 혼자 수업듣고 공부만 하는 것 같았다. 홈스테이를 해서 그럴지도 몰랐다.

라운지에서 아는 언니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J를 소개해 준 것은 찰리였다. 찰리는 대학 안 기숙사에 있어서 아는 사이였다. 한국에서 온, 같은 반 사람이라고 했다. 처음 올 때부터 advanced 반에 들어왔다고 찰리는 J를 지켜세웠다. 엉겁결에 인사했는데 착한 사람 같아 보였다.

그 이후 그녀는 J를 랭귀지센터에서 오며가며 몇 번 보게 되었다. 랭귀지센터를 나와 버스타러 가는 모습도 멀리서 지켜본 적도

있다. 아마도 홈스테이 집에 가는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바로 홈스테이 집에 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혼자 PLC(Private Learning Center)에서 공부하는 것 같았다.

“저... 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물어봐도 돼요?”

“네? 아, 네네.. 물어보세요.”

그 이후 J가 PLC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몇 번 더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봤다. J는 성실히 답변해 주었다.

J는 가끔 자신이 찍었다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호주에 오면서 거금을 들여 카메라를 샀다고 했다. “사진이라면 내가 자신있지!” 그녀는 대학 시절 사진 동아리였다. 카메라를 메고 선배들을 쫓아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동기들과 함께 사진전도 열었다. J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서 구도가 어떻다, 색감이 어떻다는 등 한 수 알려주기도 했다.

“언니, J 어때요?”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던 한국인 샬리가 불쑥 그녀에게 물었다. J와 같이 있는 모습을 몇 번 보더니 그녀에게 소감을 물은 것이다.

“뭐..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마음 고생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녀의 답변이었다.

3. 처남이라 불리는 남자

"처남, 처남!"

몇몇 한국 남자들이 그 남자를 그렇게 불렀다. 처남이라고.

처음에는 장난으로 부르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사연이 있었다. 바로 그가 그녀의 동생이었던 것이다. 남매가 함께 같은 랭귀지센터에 어학연수를 온 것이었다. 누나도 같이 왔다는 사실을 안 한국 남자들이 같이 어울리는 그를 '처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J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아니었다. 한국 남자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시티도 종종 나가고 술도 자주 마시는 것 같고. 처남이라 불리는 남자라도 거의 말할 기회가 없었다.

J는 사실 랭귀지센터에서 어울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같은 반 학생들 몇몇과 대화할 뿐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혼자 PLC에서 공부하고 귀가하곤 했다. 랭귀지센터 학생들보다는 홈스테이 가족과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 랭귀지센터에서 버스타고 가까운 Macleod 역으로 가서 한 정거장 가면 Watsonia역이고 거기서 5분 정도 걸어가면 홈스테이 집이었다.

홈스테이 가족으로는 Martyna 아줌마와 딸 Mandy가 있었다. 호주로 이민온 가족이었다. Martyna 아줌마는 남편과 이혼 후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가까운 곳에 나이드신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고 아들은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다.

J는 랭귀지센터 사람들보다는 홈스테이 가족과 어울렸다. 주말이면 혼자 시티로 나가곤 했지만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Martyna의 지인, 친척 가족을 만나러 가기도 했다.

반면 그녀는 대학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다. 랭귀지센터로 어학연수온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과 대학원에 유학온 한국인 학생들과도 어울렸다.

그러나 동생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았다. 동생과 어울리는 한국 남자 무리들과도 별로 말을 섞지 않았다. 부산에서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려 하고 있었는데, 호주로 어학연수 가는 동생 돌볼 겸 같이 다녀오라는 아버지 말씀에 함께 호주로 왔지만 그리 돌보고 싶은 동생은 아니었다. 알아서 잘 놀고 있으니 말이다.

공부는 별로 안 하고 놀러만 다니는 것 같은 한국남자들이 동생을 '처남, 처남' 이라고 부르는 것도 못마땅했다. '원데 자기들 맘대

로 처남 처남 하고 불려!’

그러나 그녀는 그때는 몰랐다. 정작 자기 동생을 처남이라고 부를 사람이 자기 옆에 있었다는 것을...

4. 그레이트오션로드에서 그녀를 생각하다

달리는 차 안에서도 J는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함께 오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J는 지금 한국인 엑슬, 샬리, 일본인 요시코와 함께 차 한 대로 그레이트오션로드를 달리고 있다.

그레이트오션로드를 1박 2일 여행하자는 것은 샬리의 제안이었다. 샬리와 엑슬, 요시코, J는 같은 반이었다. 엑슬을 흠모하고 있던 샬리가 여행 모임을 꾸민 것이다. 샬리가 J에게 함께 가자고 했을 때 J는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와 함께 가고 싶었다. 여행을 통해 좀더 그녀와 함께 있고 좀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샬리가 요시코에게 말한 상태였다. 차 한 대로 움직이는데 벌써 네 명이다. 한 명 더 함께 하기에는 1박 2일 여행이 불편할 것이다. '요시코가 안 간다고 하면 좋을텐데...' J의 희망사항은 그저 희망사항으로 끝났다.

“혹시 요시코가 안 간다고 하면 같이 가면 좋았을텐데, 요시코가 간다고 하네요. 찼...”

는 쉬는 시간에 그녀가 있는 강의실로 가서 말했다.

“그렇게 말이에요. 나도 가고 싶었는데... 그레이트오션로드 정말 멋있다고 하던데...”

그녀의 답변에서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녀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으니 당연한 아쉬움이리라.

그레이트오션로드는 멜번 근교에 있는 해안도로를 말한다. 200킬로미터가 넘는 도로를 바닷가를 따라 달리다 보면 멋진 풍광들이 펼쳐진다. 오랜시간 파도에 침식된 해안 절벽도 있고 중간중간 항구들도 있다. 런던 브리지(London Arch)라고 불리는 곳과 12사도(The Twelve Apostles)라고 불리는 곳이 유명하다.

“면허증이 없다구요?”

1박 2일 동안 번갈아가며 운전할 거라 예상했던 엑슬은 면허증이 없다는 J의 얘기에 허탈해했다. 결국 차는 엑슬이 몰기로 했다. 출발 전날 차를 렌트하고 아침 일찍 네 명이 출발했다. 멜번 근교 지도도 큰 것으로 하나 마련했다. 지도는 조수석에 앉은 J가 보기

로 했다.

드디어 출발~ 그러나 출발하자마자 난항이다. 지도만 보면서 찾아가려니 멜번 시내를 벗어나기도 힘들다. 저기 보이는 다리를 타야 하는데 가지를 못한다. 중간에 차를 세우고 지도를 보고 다시 찾아가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멜번을 벗어나 해변을 달리게 되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J는 다짐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꼭 바로 면허를 따리라. 그리고 그녀와 함께 언젠가는 한번 여기를 다시 차로 달려보리라'

5. 모든 것이 낯선 기숙사 생활

그녀는 못내 아쉬웠다.

J와 함께 그레이트오션로드를 갈 수 있었는데 말이다. 요시코만 안 갔어도 내가 가는 건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기숙사 방 청소를 했다. 그녀가 묵고 있는 Chisholm 칼리지는 어학연수를 온 해외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지 학부, 대학원생들도 함께 거주하는 기숙사이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사귄 수 있었다.

사실 어찌어찌 호주에 도착해서 기숙사에 짐을 풀을 때부터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충격이기도 했다.

Chisholm 칼리지는 남녀가 한 층에서 함께 기숙하는 곳이었다. 1인용 방이 있고 욕실, 화장실, 부엌은 공용이었다. 호주 남학생들이 욕실에서 샤워하고 수건만 걸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남녀 칠세부동석의 나라에서 온 그녀는 당황하기 일쑤였다.

가장 큰 충격은 밥을 손으로 먹는 인도네시아 여학생을 본 순간이었다. 아니, 밥을 손으로 먹는다고? 화장실에서도 사용하는 손인

데? 그걸 어떻게??? 말문이 막혔으나 눈 앞에서는 히잡을 쓴 여인이 야무지게 오른손으로 밥을 꼭꼭 눌러 입에 넣고 있었다.

히잡 쓴 여인을 보는 것도 신기했다. 책이나 TV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본 것이었다. 항상 히잡을 쓰고 있는지 유심히 봤는데 우연히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 말리는 모습을 보았다. 긴 생머리였다. 아,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긴 생머리를 항상 감추고 있어야 하는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나저나 J는 얼마나 재미있을까? 멋진 바닷가를 드라이브하는 거 참 재미있을텐데... 다음에는 어디 가까운 데 함께 산책이라도 가자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녀는 애꿎은 방 청소를 이어갔다.

6. 모든 것이 낯선 하숙 생활

그녀가 학교 안 기숙사 생활을 한 것과 달리 J는 하숙을 했다. 기왕 영어 공부하러 가는데 호주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 영어 공부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어학원 통해서 연결해 준 호주 가족은 사실 서양인 가족은 아니었다. 방글라데시 같은 아시아 쪽에서 이민온 가족이었다. Martyna 엄마 외에 딸 Amanda와 아들 Andrew가 있었다. 남편과는 이혼해서 따로 살고.

하숙집 가족의 생활 양태를 보고 J가 놀란 점은 두 가지였다. 먼저 아들 Andrew가 여자친구와 동거 하느라 밖에 나가 살고 있다는 점이었다. "헐, 동거를 한다고? 나랑 동갑인데?" Andrew는 J와 동갑이었는데 이미 목공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다.

J가 놀란 두 번째는 Martyna의 아버지가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거동도 불편한 아버지는 2~3주에 한번씩 Martyna 집에 저녁식사 하러 왔다. "이렇게 걸기도 어려운 분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고?!" 이것 또한 J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주말이면 J는 베낭을 매고 시티로 나갔다. 시티 곳곳을 다니면서 박물관, 옛 건물, 전시회 등등을 구경하였다. 시티에 나가지 않는 주말이면 하숙집에서 편안하게 쉬던가 하숙집 가족들과 근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친척집에 놀러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주말, J는 생소한 파티에 초대받았다.

"J, 내 divorce party에 초대할게. 참석해 주면 좋겠어."

"엥? 뭐라구요? 이혼 파티라구요?"

하숙집 아줌마 Martyna는 남편과 이혼하였고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혼 파티를 한다는 것이었다. 수녀님 한 분, 여러 친구들, 아들, 딸을 초대한다. 장소는 정원에 딸린 목공 건물. 아들 Andrew가 집에서 살 때 쓰던 목공 건물이다.

어색함과 신기함을 가지고 J는 자리에 앉았다. 원을 그리듯 놓여 있는 의자 중 하나였다. 수녀님과 친구들, Amanda도 앉았고 이혼 파티의 주인공 Martyna도 앉았다. 아직 짧은 영어 실력을 가진 J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혼하는 Martyna를 위로해주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는 자리 같았다. 뭔가 흰 천을 이용해서 퍼

포먼스 같은 것도 했다. 이혼파티라는 것을 하다니... 거기에 마침 내가 참석하다니.. J는 신기하기만 했다.

이혼 파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Martyna 아줌마네 친척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친척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날이었다. 하숙집보다 훨씬 큰 집이었다. 넓은 정원에 편하게 앉아서 쉬다가 누군가의 제안으로 게임도 했다. 한국에서 많이 하던 게임이었다. 신문 위에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나 하는 게임이었다. 신문 한 장을 펼쳐서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성공하면 신문을 반으로 접어서 그 위에 올라가고 또 성공하면 신문을 다시 반으로 접어서 올라가고... 다같이 올라서지 못해 와르르 쓰러지면 다들 깔깔깔 웃었다.

친척 모임에서 유일한 외국인이었던 J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J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다들 J가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얘기해줘서 다행이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친척들은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J와 Martyna 가족들은 친척 집에서 잤다. 다음날 새벽 주변 산에 가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혼 파티 후 일출을 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마음에 새기려는 Martyna 아줌마의 희망이기도 했다.

새벽 Amanda가 깨우는 소리에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갔다.
Amanda가 모는 차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갔다. 아쉽게도 날이 흐려
일출은 보지 못했다. 간단히 소시지 등으로 아침삼아 먹고 내려왔
다. 일출을 보지는 못했지만 J는 이것저것 재미있는 경험을 해서
좋았다.

7. 주말마다 city로..

J가 홈스테이하는 곳은 Melbourne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Macleod라는 동네였다. 랭귀지 센터가 있는 La Trobe 대학과 가까운 곳으로 홈스테이를 잡은 것이다.

J는 주말이면 가방을 매고 city로 나갔다.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관람하기를 좋아했다. 언제 다시 호주에 오겠냐는 생각으로 돌아다녔다.

J가 멜번에 도착하고 city에 나간 후 줄곧 가고 싶던 곳은 Museum of Victoria 안에 있는 Planetarium이었다. Planetarium은 둥근 천장에 밤하늘 별자리를 보여주는 천체투영관이다. J가 특히 이 곳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었다.

'별자리라면 내가 자신있는데... 영어로도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J는 별보는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었다. 한 달에 한번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망원경을 들고 교외로 나갔다. 을왕리 바닷가에 돛자리를 깔고 누워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뿔별을 하룻밤에 백개를 본 적도 있었다. 그 날은 1년에 한번 있는 페르세우스 유성우 날이었다. 저멀리 수평선에서 떠오르듯이

나타나는 별뿔별, 십자가 마냥 두 별뿔별이 크로스하는 장관들..

'이런 게 Planetarium이구나. 역시 멋진걸!'

사실 J는 Planetarium을 말만 들었지 처음 봤다. 해설사가 설명을 해 주는데 처음에는 전혀 못 알아듣다가 조금 익숙해지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었다.

'시골 촌놈이 출세했네. 이런 것도 보구.. 역시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것들과 부딪쳐야 해!'

Planetarium을 관람한 후에는 Old Treasury Building에 가서 호주 노인들 사이에 끼어 설명 투어도 듣고, Fitzroy 가든에 가서 Cook 선장 cottage도 보았다.

낮에 city에서 여기저기 둘러보고는 저녁 무렵 뮤지컬을 보러 갔다. "Phantom of the Opera"라는 뮤지컬이었다. 뮤지컬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호주에 와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자고 찾던 중에 뮤지컬 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거금 40불을 들었다.

"Phantom of the Opera"는 시내에 있는 Comedy Theatre에서 했다. 시작 시간이 8시인데 7시 20분경 도착했다. Theatre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놓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동전 줄까 했지만 너무 못 연주해서 안 주기로 했다. '썸만

더 잘 연주했어도 주는 건데..'

Theatre 앞에서 동전 줄까말까 고민하면서 기다리다가 8시 시작 시간에 맞춰 들어갔다. 다들 커플, 가족들끼리 오는데 J는 혼자여서 어색함을 어쩔 수는 없었다. 뮤지컬은 중간중간 웃기는 행동들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런 행동들마저 없었더라면 J는 거의 알아듣기 힘들었을 것이다.

뮤지컬이 끝나고 Parliament Station에 가서 train을 타고 홈스테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하숙집 딸 Mandy가 안 자고 책을 읽고 있었다. 하숙집 아줌마 Marty도 J가 늦게 와서 a little bit concerned였다면서 거실로 나왔다. 그들을 위해 city에서 산 초콜릿을 주고는 방으로 돌아왔다.

'하루 동안의 여행. 그런대로 괜찮은 여행이었어. 나만의...'

J는 걸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설명도 듣고 사진도 찍고 직접 부딪쳐 물어보기로 한 오늘의 여행에 내심 뿌듯함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

8.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웃통 홀러딩 벗고 캠핑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남자들, 뒤뜰에서 소시지를 굽고 있는 여자들, 잔디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J가 TV에서 봤던 남쪽 나라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미지는 그랬다. '눈이 없는 크리스마스라니.. 기분이 이상할 것 같은데?'

사실 J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종교도 없는지라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기념해 본 적이 없었다. 더구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니...! 파티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는 J. 기대반 설레임반으로 크리스마스를 지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J가 묵고 있는 하숙집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였다. 하숙집 마줌마 Marty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져온 음식을 함께 먹고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다.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각자 가져온 선물들을 쌓아놓은 후 Marty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누어 주었다. J에게는 하숙집 아들 Andrew와 Andrew 여자친구 Sally가 큰 양말에 이것저것 작은 선물들을 잔뜩 넣어주었다. 작은 스푼, 음악소리가 나는 머그잔, 호

주 slang에 관한 책, 호주 풍경이 있는 달력, 코알라 인형 등등...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J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들이다.

크리마스 당일에는 Marty 아줌마네 친척 Ron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친척들이 30명도 넘게 모이는 대규모 파티였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꼬마들까지 다 모였다. 넓은 정원에 편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쉬었다. 모임에서 유일한 외국인이었던 J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사람들이 J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퍼부었다. 다들 J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얘기해줬다.

누군가의 제안으로 게임도 했다. 한국에서 많이 하던 게임이었다. 신문 위에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나 하는 게임. 신문 한 장을 펼쳐서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성공하면 신문을 반으로 접어서 그 위에 올라가고 또 성공하면 신문을 다시 반으로 접어서 올라가고... 다같이 올라서지 못해 와르르 쓰러지면 다들 깔깔깔 웃었다.

파티를 마치고 친척들은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J와 Martyna 가족들은 Ron 집에서 잤다. 다음날 새벽 가까운 곳에 있는 Dandenong Mountain에 가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혼 파티 후 일출을 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마음에 새기려는 Marty 아줌마의 희망이기도 했다.

새벽 Amanda가 깨우는 소리에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갔다. Amanda가 모는 차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갔다. 저멀리 동쪽을 바라 보는데... 아쉽게도 날이 흐려 해는 보이지 않았다. 붉그스름한 기운만 흐릿하게 보였다. 간단히 소시지 같은 걸로 아침삼아 먹고 내려왔다.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두 군데 친척집을 더 들렀다. 그렇잖아도 짧은 영어인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J는 살짝 신경이 쓰였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다같이 모이는구나. 여기 명절이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9. 데이트인듯 데이트아닌듯...

오늘도 J는 PLC(Private Learning Center)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다. 수업 후 하숙집으로 가기 전 1~2시간 과제를 하거나 밀린 공부를 하고 출발하곤 했다. J가 수업 후 혼자 공부하는 것을 안 그녀는 종종 J에게 와서 이것저것 영어에 대해 물어보았다. 오늘도 저멀리 그녀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혹시 나에게 관심있는 거 아냐?'

J는 혼자 김치국물을 사발째 들이키고 있었다.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저 이것 좀 물어봐도 되요? 호호"

"아, 예, 물어보세요. 하하"

간단한 영어를 물어보고 그녀는 돌아가려고 했다. "같이 가요." J도 마침 집으로 나서려던 참이라 같이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다. 같이 랭귀지센터를 나서는데 그녀가 제안한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Agora 가서 칩 같이 드실래요?"

Agora는 La Trobe 대학 가운데에 있는 광장 같은 곳이었다. 주변에 카페테리아, 서점, 우체국, 여행사 등등, 말하자면 학생회관 같은 곳이었다. 사실 J는 Agora 쪽으로 별로 갈 일이 없었다.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은 주로 Agora 쪽으로 많이 가지만 J처럼 하숙하는 학생들은 랭귀지센터에서 바로 정거장으로 가서 하숙집으로 가기 마련이었다.

"제가 살게요, 감자칩."

그녀가 산 감자칩을 Agora 광장 벤치에 앉아 먹었다. 나란히 둘만 앉아있으니 J는 기분이 이상했다. '정말 나한테 관심있는 거 아냐? 여기도 먼저 오자고 하고..' 둘만의 자리가 살짝 어색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감자칩을 먹으면서 그녀의 기숙사 생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가 학교 안에 넓은 잔디밭 운동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J가 용기를 내어 제안했다.

"거기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저야 좋은데, 하숙집 가려면 지금 출발하셔야 하는 거 아니
예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 하숙집 가는 버스 타려면 그쪽으로 갔다
가 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하하"

넓디넓은 잔디구장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간혹 이름모를 새소리
만 들렸다. 하늘은 파란색 자체였다. 뭉게구름마저 예뻐보였다. 둘
은 천천히 잔디구장을 걸었다. 조용하고 한적한 둘만의 시간이었
다. 왠지 엉겁결에 데이트를 하는 느낌이었다. J와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몇 바퀴째 돌았다. 이 시간을 더 오래 갖고 싶어 천천히
걸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J만의 착각이었을까?

그렇지만 시간은 J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다. 이제 정말 하숙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하숙집행
버스가 서는 정거장으로 왔다. 그녀와 나란히 서서 버스를 기다렸
다. J는 이렇게 그녀와 나란히 있는 시간이 좋았다. 그렇지만 버스
마저 빨리 도착했다. 시간도 버스도 야속하게만 느껴졌다.

버스에 올라탄 J는 맨 뒤에 앉았다. 그리곤 망설였다. 뒤를 돌아볼까? 그녀가 나를 계속 보고 있을까? 뒤를 돌아보면 내 마음을 들키는 것은 아닐까?

계속 망설이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아~ 그녀가 없었다. 그녀는 벌써 돌아서고 없었다. 허탈한 마음을 안고 J는 어둑해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0. 벌써 수료식, 그녀가 사진을 찍어주다

벌써 수료식날이다.

어리버리한 얼굴로 낯선 해외에서 첫 수업을 들은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수료식날이 되었다.

J는 호주에 와서 거금을 들여 산, 캐논 T70 카메라를 들고 갔다. 수료식은 금방 끝났다. 이번에 수료한 사람, 아직 더 남아서 공부할 사람들이 뒤섞여 서로 축하해주고 사진을 찍고 찍어주었다. 그녀가 다가왔다.

"수료 축하해요! 어? 이거 좋은 카메라네요! 제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아,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ㅎㅎ"

영겁결에 J는 그녀와 함께 수료식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과 사진을 찍게 되었다. 함께 수료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녀가 찍어 주었다. 어느 정도 사진을 찍더니 그녀가 제안했다.

"저쪽 Chishom College 가는 쪽에 La Trobe 대학 로고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찍으면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요?"

같은 반을 수료한 한국인 한 명, 일본인 한 명과 함께 그쪽으로 향했다. 그녀가 이리저리 위치를 코치하면서 연신 사진을 찍어주었다.

좀더 학교 본부 쪽에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호숫가 잔디밭이었다. 그녀가 J에게 앉으라고 한다. 여기 뒤쪽 호수 배경으로 찍으면 멋있게 나온다고. J는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그녀가 자청해서 카메라를 들고 나와 계속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다니! 그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 사진에 찍히며 수료식날은 저물어 갔다.

11. 그녀를 찾아 멜번 시내를 헤매다

J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교 기숙사에 있는 그녀와 통화하려면 공동전화로 전화해서 누군가 받으면 그녀를 바꿔달라고 해야 한다. 다행히 통화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이제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요. ㅎㅎ"

"아, 네, 드디어 가시네요..."

J는 마지막 주말 멜번 시내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녀는 "아, 저도 혹시 나갈지도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마지막 주말, J는 예정대로 멜번 시내로 나갔다. 멜번에 어학연수를 온 이후 거의 매주 돌아다니던 시내인데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느낌이 달랐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도 J의 시선은 계속 누군가를 찾듯이 두리번두리번 거렸다.

그녀가 수화기 너머에서 "저도 혹시 나갈지도 모르겠어요."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State Library 앞에도 가보고,

Melbourne Central에도 들어가보고 Yarra강에도 가보고..

그러나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통화할 때 "함께 갈래요?"라는 말을 하지 못한 자신이 미웠다. '바보 멍충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어둡해진 시티를 벗어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12. J가 떠난 랭귀지센터에서...

다시 새로운 term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반에서 수업을 받았다. 그 사이 영어 실력도 늘어서 레벨이 올라갔다.

J는 4학년에 복학해야 한다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돌아가기 전 전화가 왔었다.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같이 시티에 놀러가자는 얘기를 J로부터 듣기 원했지만 그 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무심한 사람 같으니...

동생은 여전히 한국에서 온 남자들이랑 잘 어울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녀는 영어공부에 열을 올렸다. 다행히 기숙사에서 몇 명 과 친하게 지냈다. 일산에서 왔다는 언니와도 친하게 지내고 파키스탄에서 왔다는 유학생과도 친하게 지냈다.

한 term이 끝나고 시간이 남았다. 어디를 갈까 하다가 J가 연말에 다녀왔다는 태즈매니아에 가보기로 했다. 호주 대륙 밑 쪽에 붙어있는 섬.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다. 혼자서 여행하는 것이 걱정스러웠지만 가보기로 했다.

역시나...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산 속 숙소에 캥거루가 돌아

다녔다. 사람도 별로 없었다. 자는데 멀리서 동물 울음소리가 들렸다. 에구.. 내가 왜 J 말만 듣고 여기를 왔을까...

13. 인연은 다시 편지로 이어지고...

J는 한국으로 돌아와 4학년에 복학했다. 2월 중순에 들어와 정신 없이 수강신청하고 서울에서 학교 다닐 준비를 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 마음 한편에는 멜번을 떠나기 전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못내 아쉬웠다. 한번더 전화를 할 걸...

대학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문득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를 찾았다. 전화카드를 넣고 국제전화를 돌렸다. 다행히 그녀와 통화가 되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알고 지내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귀국해서 조금 심심해요.” J는 자기가 없어서 심심하다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편지를 썼다. 항공우편으로 보냈다. 답장이 왔다. 그렇게 몇 통의 편지를 주고 받았다. 며칠을 기다려야 받는 편지였지만 읽고 또 읽으면서 더 친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7월이 되니 그녀가 돌아온다는 편지가 왔다. 김포공항 국제선으로 마중을 나갔다. 출국장에서 꽃을 들고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나왔다. 2월 멜번에서 헤어진 후 5개월 만이다.

보고 싶던 얼굴...

그 얼굴이 바로 눈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14. 아이들과 함께 호주로...

J는 2007년 변화경영연구소 구본형 선생님의 꿈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2박 3일간 포도만 먹고 단식하면서 자신의 꿈과 미래직업을 찾는 작업이었다.

마지막 날은 각자의 10대 풍광을 작성해서 낭독했다. 10년 뒤 미래로 가서 돌아보듯이 과거형으로 쓰는 '미래의 회고' 작업이었다. J는 10대 풍광 중 하나에 이렇게 썼다.

"드디어 호주 멜번 라트로브대학을 가다.

혜정이와 나는 호주 멜번의 라트로브 대학 푸른 잔디구장을 거닐었다. 어린 젊디젊은 시절, 이 곳에서 어학연수 하면서 처음 만났다. 이렇게 아리따운 부산 아가씨를 낯선 호주 땅에서 만난 건 나에게 행운 그 자체였다. 결혼하면서 10주년에 다시 찾기로 했던 호주는 많이 늙어져 2025년 여름, 결혼 27년 만에 두 아이들과 함께 올 수 있었다. 둘이 처음 만났던 곳에서 넷이 한가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다."